

2017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시 2017년 9월 21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김 민 호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장 민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신 호 순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병 희 공보관
	이 동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보고 제64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64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지난 9월 15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민간신용 전체의 레버리지(leverage) 수준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가계와 기업신용 레버리지의 움직임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신용 레버리지 움직임에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와도 관계되며, 최근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가계신용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가계 및 기업신용에 대한 리스크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이에 대해 현재 정부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가계신용 취급 인센티브(incentive)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고 첨언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중신용자 신용대출시장에 대한 분석은 최근 정부 감독당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금리 대출시장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중신용자 신용대출시장의 문제는 차주의 과거 신용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도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등 최근의 상황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유효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중신용자 신용대출시장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과 관련하여 특히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에 대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 둔화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신용의 공급 및 수요 측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자산시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히 외국인 주체별 투자의 특성과 움직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최근 여신전문회사의 수익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카드사태에 비추어 관련 모니터링(monitoring)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여신전문회사의 수익성이 다소 낮아진 측면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이들 회사의 자본적정성 등 복원력은

양호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만 카드사가 최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하여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한편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지수와 관련하여 최근의 자본시장 동향이나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동 지수의 움직임이 안정적인데 향후 조기경보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수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8.2 대책 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주택 및 건설경기의 외생적 충격을 보다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이들 대책이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의 차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금융업권간 리스크 전이경로에 대해 상호거래의 상품별 특성과 이에 따른 리스크 전이경로를 상세히 잘 분석하였으며 향후 이를 금융시스템 리스크 측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투자펀드의 경우 부도확률 추정이 과제로 남아 있지만 관련 리스크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보다 현실에 부합한 리스크 측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분석모형을 개선하고 향후 개발 예정인 비은행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금융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측정의 정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이번 보고서를 보면 최근 고조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보고서의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지난 위원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한 만큼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검토해 봐야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음.

먼저, 이번 정부의 8.2 대책 등이 향후 국내 가계부채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잘 분석해 주었는데, 비단 금번 대책뿐만 아니라 보다 긴 시계에서 보더라도 국내 주택 및 건설 경기는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분석을 심도 있게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하고, 특히 지난 3~4년간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exposure)가 유의하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주택 및 건설 경기의 변화가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 P/F 등의 신용순환과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새도우뱅크(shadow banking) 부문 등의 수익성과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 부문별 점검 외에도 전체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둘째, 예상대로 오는 10월부터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가 시작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가 글로벌 금융사이클의 변화를 통해 신흥국과 국내 금융시스템에 파급되는 효과(spill-over)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건전성과 수익성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완화적 금융여건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나 앞으로 글로벌 금융순환의 국면 전환과 더불어 이러한 우호적 대외여건도 점차 긴축화되면 그간 높은 위험추구 성향과 레버리지 확대를 추구해 온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누적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 연준뿐만 아니라 ECB 등의 테이퍼링(tapering)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파급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에 힘쓰는 한편 필요시에는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당국에 대한 정책제언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의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제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전체 민간신용의 규모가 상당한 가운데 기업신용의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점, 금융안정지수가 주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하는 점,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자와 유사한 거래행태를 보일 경우 금융시장의 충격이 증폭될 수 있는 점을 언급하였음. 아울러 미 연준의 자산팽창 이후 미국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완화적 금융기조 하에서는 금융지표가 대체로 양호하므로 이를 통해 잠재리스크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후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포착하기 위해 실물경제의 움직

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미 연준, ECB,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전개 양상과 방식이 서로 상이할 텐데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국내 금융시스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동산 대책의 영향, 취약차주 문제 등 가계부채 관련 사항에 대해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3) 심의결과

설명 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2017년 1/4분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북한 리스크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안정된 모습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실적이 호전되고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도 개선.

한편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노력이 지속되고 대외지급능력도 제고되면서 우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한 상태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

다만 북한 리스크 상존, 주요국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1.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가. 신용시장

2017년 상반기중 가계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기업신용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

가계신용 확대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부채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 움직임과 맞물려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

향후 가계부채는 8.2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예정)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글로벌 경기 회복, 경영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

다만 최근의 실적 개선이 수출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

나. 자산시장

2017년 상반기중 채권 및 주식 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인 반면, 주택가격은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

채권시장에서는 8월 들어 북한 리스크로 장기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금리변동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축소.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7월말 이후 차익실현, 북한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약세.

주택가격은 8.2 대책의 영향으로 그간의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

다. 금융기관

은행은 순이자마진 확대, 대손비용 감소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호전되었으며 자산건전성도 개선 추세를 지속.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 수익성도 전반적으로 개선.

다만 2016년 하반기 이후 취약차주 및 비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점에 비추어 향후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라. 자본유출입

외국인 증권자금은 2017년 1-7월중 글로벌 투자심리 및 국내기업 실적 개선,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 여건 등을 배경으로 꾸준히 순유입되다가 8월에는 북한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

2. 금융시스템 복원력

가. 금융기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자본적정성 등 관련 지표가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

다만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2018년 이후 자본규제 강화 등에 대비하여 자본 확충 노력을 지속할 필요.

나. 대외지급능력

순대외채권과 외환보유액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단기외채비중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은 양호한 상태.

3. 금융안정지수

우리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6년 3월 이후 주의단계(8-22)를 계속 하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017년 2/4분기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나 8월 들어서는 북한 리스크 증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다소 상승.